베네데티의 소설 『비계』+에 나타난 민주화 이후의 우루과이 사정

- 탈(脫)망명자의 현실과 이상

박 종 탁*

Ⅰ. 서 론

70년대 중남미에는 군사독재가 기승을 부렸다. 수많은 민주인사가 해외로 떠나야만 했다. 이들이 낯선 땅에서 연명하고 적응하기 위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렇지만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갈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부여안고 나그네의 설움을 이겨냈을 것이다. 그로부터 십여 년이 지나 80년대에 중남미는 민주화의 봄을 맞이하였다. 민주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망명객은 서둘러 보따리를 싸고 고향으로 향한다. 그의 보따리에는 향수와 선입견, 희망과 고독의 편린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다.

그러나 조국은 마음에 간직하고 떠난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었다. 예전에 누리던 민주주의는 시골 생활처럼 안온하고 친근감이 있던 것이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다 알 듯 하였고, 누구나 상냥하고 예의 발랐

+ 『Andamios』, Alfaguara, Madrid-Mexico, 1997. 작가는 서문에서 이 책을 1994년에 쓰기 시작하여 1996년에 탈고하였고, 집필장소는 몬테비데오, 부에노스 아이레스, 마드리드, 뿌에르또 뽀옌사임을 밝히고 있다. 작품은 전통적인 스토리 정열 방식이나 인물 중심주의를 따르지 않고, 독립적인 75장의 글로 구성되었다. 이는 집필 당시 작가의 나이와 일치하는 숫자이다.

* 부산외대 서양어대학 스페인어과 교수

으며, 거리엔 가로수가 우거지고, 까페와 극장과 가게가 어우러졌었다. 이렇듯 그의 의식 속에서 조국의 '현재'는 푸근한 정경으로 멈춰져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삭막한 '현재'는 부재자에게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지 않는 탓에 괴리감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조국은 그를 반갑게 맞이할 만큼 여유가 있지도 않았다. 민주주의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과거 청산과 화해는 지지부진하고 안정과 번영은 더욱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조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러한 탈(脫)망명객(desexiliado), 즉 망명지에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제 나라에 온전히 적응하지 못한 47세 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 마리오 베네데티의 소설 『비계』(Andamios)이다. 비계란 고층 건물을 짓거나 수리할 때 디디고 서기 위해 긴 나무와 널을 걸쳐놓은 시설인데, 요즘에는 나무 대신에 철봉과 철판을 많이 쓴다. 작가는 서문에서 스페인한림원 사전(1992)을 인용하여 이 용어를 더 자세히 풀이하고 있다. "건물의 건축이나 수리, 벽이나 천장의 색칠, 조상(彫像)이나 기타 물건을 올리고 내리기 위해 널을 수평으로 놓고 기둥 나무로 받친 장치. 비유적인 뜻으로도 쓰임".

이것을 제목으로 삼은 것은, 전통적인 소설과는 달리, 중심 스토리가 없이 흩어진 형태 -대화, 독백, 사색, 회상, 꿈, 편지와 팩스, 신문 칼럼, 시 등-로 책을 꾸민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양한 조각들을 모아 새로운 조국 건설을 모색해보자는 창작 목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가는 서문에서 Haro Tecglen을 인용하여, "현 상태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것이 우아하게 운용되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지만,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시민이 그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영원히 공사 중인 체제, 결코 완성이 될 수 없는 제도로 받아들인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공사'를 위해 비계가 필요하다고 밝힌다.

민주주의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제도상으로는 영원한 미완성이지만 과정상으로는 최대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이

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비관적인 현실과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가꾸어 꽃을 피워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 베네데티에게 있어 비관주의자란 문제에 정통한 낙관주의자에 다름 아니다.[1]

이 글은 작품 『비계』를 통하여 민주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만만치 않은 우루과이의 현 상태를 둘러보면서, 작가가 희구하는 유토피아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혹은 꿈이라도 꿀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Ⅱ. 민주화된 조국의 균열상

독재의 사슬이 풀려 억압과 박탈에서 벗어나 자유와 민주가 회복되는 것은 큰 축복이다. 그러나 민주화로써 단번에 안정과 번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기까지 과도기의 혼란을 겪게 마련이다. 이 과정이 짧을수록 사회통합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진통이 증가되고 새로운 분열이 일어날 위험이 높아진다. 민주화된 지 10여 년이 지날 즈음에 베네데티가 본 우루과이의 사정은 어떠한가?

주인공의 대학생 딸은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우루과이에서 발행되는 두 종류의 잡지를 거론한다. 하나는 「균열」(Brecha)지로서 약간은 우울하고 출구가 없는 어두운 국가상을 제시하고, 다른 하나는 다국적기업과 금융권이 광고주인 「모색」(Búsqueda)지로서 신자유주의의 달콤한 환상에 젖게 하면서 자본주의의 책략을 눈가림한다. 이 '균열'과 '모색' 사이에 처해 있는 것이 이른바 민주화된 우루과이의 현 상태라는 것이다.[2]

---

1) El País 紙, 1997. 5. 27 문화면. "El pesimista es un optimista bien informado"

2) 비슷한 정치적 역정을 거친 아르헨티나, 칠레의 경우도 대동소이하다. 작년 가을 런던 여행 중에 피노체트 전 칠레 대통령이 구금된 사건은 이러한 사정을 국제적으로 환기시켜 주었다.

1. 편견, 불신, 두려움

군사독재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감시와 밀고, 체포와 투옥, 고문과 암살, 압수와 정간 등이 다반사로 벌어지거니와, 1973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한 우루과이의 군부도 야만적인 통치로 악명이 높았다. 12년만에 민정은 회복되었지만 독재가 남긴 상처와 후유증은 만만치 않았고, 그 중에서도 편견과 불신과 두려움은 아직껏 깊고 광범위하게 민중 사이에 남아 사람들 사이의 정상적인 관계를 저해하고 있다. 다음은 주인공 하비에르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다.

> "우리 중남미 국가들은 저마다 작은 베를린 장벽을 만들었고 이걸 아직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부활은, 그 모든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만들었어요. 미터기로 재는 거리가 아니라 편견과 불신으로 재는 것 말이죠 여러 유형의 원한들이 소비 시장에 진열이 되었어요 어떤 것은 부가세가 붙고, 어떤 것은 부가세가 없고요. 어떤 것은 재고처분이나 바겐세일이 되는데, 어떤 것은 사회의 기억 속에 깊이 틀어박혀 있고요. "(p.237)

'장벽'을 세부적으로 보자면, 먼저 상당수의 망명자가 돌아가길 꺼렸으며 심지어는 한 가족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곤 하였다. 주인공인 하비에르의 경우도 그러하여서, 부인과 딸은 스페인에 남는다. 아내가 귀환을 거부하는 사유는 이렇다. 첫째, 망명지에서 겨우 이루어 놓은 경제적 기반을 포기하고 귀국한다 할지라도 조국의 민주체제가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 둘째, 남편도 완전히 믿을 수는 없다. 하비에르가 먼저 국외 탈출한 후 군사정권이 그를 찾느라 혈안이 된 것으로 보아 비밀임무를 띤 중요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아내는 생각한다. 그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불신의 씨앗으로 남는다. 상식에서 벗어난 짓을 하는 것이 독재체제의 특징임을 간파하지 못하고 독재의 야비한 철저성을 중요성으로 오인한 탓이다.

떠나지 않았던 자들과 돌아온 자 사이에도 거리감이 생겨난다. 이들은

돌아온 자들에게 망명생활이 어땠느냐고 묻지도 않는다.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과 장기 투옥을 겪은 그들에게 있어 최소한 안전과 자유를 누린 망명자는 도피자인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경멸과 질투라는 이 상반된 감정은 망명자에 대한 적대의식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독재정권의 탄압과 이기적인 사회의 냉대로 인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독재의 인권유린은 그렇다치고, 민주화 투쟁을 하다 옥고를 치른 사람들을 사회는 어떻게 맞이하였던가. 환대와 위로 대신에 일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었고, 보다 젊은 세대는 이들을 별난 존재로 간주한다. 이들이 실의와 회의에 빠지게 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몰고 온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좌파로 하여금 방향감각의 상실과 무력감 속에서 스스로 와해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이제는 단지 친구란 말이 동지의 개념을 대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거의 건널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다. 군부가 주축이 된 이 가해자들에 대해 피해자들은 이중의 감정을 지닌다. 그것은 원한과 두려움이다. 가족과 동지의 죽음, 자유의 박탈과 인권 말살, 가정의 파괴, 건강과 생업의 상실 등등 12년간에 쌓인 원한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민주혁명이 아닌 경제 실정과 국제적 비난 때문에 대의명분에 밀려 퇴진한 군부와 기득권층의 세력은 여전히 강해서, 과거의 불법과 만행에 대해 법적 청산은 커녕 사면을 내어주고 말았다(아르헨티나(1990년에 사면법 통과), 칠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원한이 가시질 않으며, 과거를 잊으려하기 보다는 오히려 잊지 않으려 노력하게 된다.

다른 한편, 민정복구가 된지 10년이 넘도록 두려움을 지니고 사는 시민이 적지 않다. 실제로 쿠데타가 다시 일어날 조짐도 없고 조직적인 탄압도 없지만, 여전히 두려움은 시민의 일상에 작용을 하고 있다. 외국에서 살면서 그곳 군인만 보아도 가슴이 두근거리는가 하면, 군부독재세력에 대한 사면 건을 국민투표에 부쳤을 때 찬성표의 상당부분은 부결될

경우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렇듯, 배신과 밀고로 인한 불신, 고문과 투옥의 상처, 불시 단속과 검열에 대한 공포 등은 거의 병적인 두려움으로 남아 있곤 하다. 이제 주인공의 연인이 된 옛 여동지는 같이 집회에 참석하면서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맨 끝 가장자리에 위치하려 한다. 유사시 도망을 가기 위한 방어본능이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불합리하거나 근거가 없는 것만은 아님을 작품은 보여준다. 밤사이 벽에 그려진 나치 문양이나, 자동차 방화, 밀고자가 여전히 얼씬거리는 것도 '그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음을 상기시키지만, 8장에 걸친 퇴역 대령 베하라노에 관한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가 어려운 진정한 이유를 알게 한다. 그것은 한 마디로 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뒤에 보다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2. 구조적 타락

사회가 부패하는 것은 개인의 탐욕 때문인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 때문인가? 인간 자체가 죄에 빠지기 쉬운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남의 탓, 사회 탓으로 돌리는 건 부질없는 일이긴 하나, 현대사회의 복잡한 구조에 층층이 침투한 부패상은 탐욕스런 개인을 더욱 탐욕스럽게 만들고, 정직과 선의로 살려는 개인의 의지를 쉽게 무너뜨린다. 그런 까닭에 『비계』에서 작가는 타락한 개인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동시에 그 배경에 있는 국가-세계-시대-계층에 주목한다. 특히 만악의 뿌리인 배금주의가 다분히 미국의 입김과 영향 탓이라고 보는 듯하다.

안락하고 유복한 생활을 좇아 노모를 버려 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하비에르의 형과 누나는 비열한 인간으로 여러 장에 걸쳐 묘사된다. 이들은 어머니에게 뜻하지 않은 재산이 생기자 득달같이 달려와 재산분배를 요구한다. 동생 하비에르가 탐욕의 대열에서 빠지자 이들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생을 비난한다. 하비에르는 이것을 '미국 종

앙'(llaga norteamericana)이라고 부른다. 모두가 병적으로 배금주의와 성공의 신화에 매달려 사는 암세포 같은 존재인 동시에, 끝없는 물질적 경쟁 속에서 '화려한 빈곤'(lujosa miseria)을 겪는 미국적 생활방식의 희생자들인 것이다.

작가의 반미주의는 잘 알려진 것인데, 이 작품에서도 베네데티는 미국에 대해 거의 적의에 가까운 경멸을 표출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세계화, 신자유주의를 주도하고, 남미공동시장(Mercosur)을 배후에서 조종하며, 쿠바를 제외한 독재국가의 정치 이민은 받지 않고, 소련 해체 후 새로운 무기 소비처를 찾아 전쟁을 일으키는 행태 등을 비판하며, 때로는 록 허드슨이 AIDS에 걸리고 레이건이 치매에 걸린 것을 조롱하기도 한다. 미국에 대한 비판은 단편적이라기보다는 꽤 조직적이어서 혹은 칼럼 형식으로, 혹은 장문의 편지 형식으로 미국의 실체를 해부하고 있다.

원인이야 어디에 있건, 작품에서 가장 많이 거론하는 문제는 부패에 관한 것이다.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희화적으로 다루는데 몇 가지 예를 보자:

> "멕시코시티는 부당하게 부패한 도시란 오명을 쓰고 있어. 사실 거기의 '촌지'(la mordida)는 멕시코식 팁일 뿐이야. 내 이론으로는, 멕시코의 촌지는 '선험적'(a priori) 팁이지.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팁은 '후험적'(a posteriori) 부패가 아냐?" (p.64)

> "어쨌든 기자로서의 내 전문분야는 스포츠가 아니라 일반화된 부패야. 이건 이미 올림픽화 되어서 세계적인 중요성을 획득했지. 대단한 다국적 업종이야. 요즘엔 경제의 세계화가 유행을 타고 있지만 나를 더 흥분시키는 건 부패의 세계화라네." (p.65)

> "내가 철저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 시대착오가 어디에서 먹혀들겠나? 난 이미 진보주의병에 걸렸다 톡톡히 그 대가를 치렀어. 어디 직장만 잃었나, 주택, 저축, 자격증, 가정생활,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연금의 동기, 개구쟁이 조카들, 애인과의 아쉬운 작별도 잃었다구. 거기다 육 개월의 감방경력이 이력서를 부풀렸지, 그 정도야 약과였지만." (p.65)

이상은 에히스토라는 전직 얼치기 운동권이 늘어놓는 익살 중의 일부이다. "부패는 범세계적이고 반면에 정직은 겨우 지역적이 될까 말까한 실정"(p.306)이다 보니, 거지가 된 세르반도는 자기의 직업엔 부패도 뇌물도 없으니 복 받은 직업이라고 빼긴다. 하비에르의 사윗감인 스페인 대학생 에스태반은 <제 3세계 국가간 부패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하면 상당히 흥미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루과이 역시 부패 증후군을 앓고 있다. 부패에 관한 한 공무원과 정치인이 앞장을 서는데, 특히 정치인들은 속이 빈 거창한 공약과 천성적인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한다. 그들은 갑작스런 이합집산과 배신, 교활성과 야욕 등으로 지탄을 받는다. 때로는 선의를 가진 정치인도 없지 않지만, 결국은 안팎의 압력에 굴복하여 처음의 의욕과 의지를 포기하기 마련이다. 혹 우루과이의 부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과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부패 방식이 다를 뿐 정도가 덜하다고는 할 수 없다. 가령, 민영화를 통해 국가를 사익(私益)에 봉사하게끔 하는 것은 심각하다.

시민의 삶의 질도 악화되었다. 극장과 카페와 상점이 잘 어우러졌던 거리는 벼룩시장화 되고 차량이 폭증하였다. 도둑 때문에 개가 필수품이 되고, 탁자 위에 팁을 두면 아이들이 훔쳐 달아난다. 시민들 사이의 동질감과 친근감은 사라지고, 이제 전처럼 싹싹하고 예절바르지도 않다. 사람들은 소비주의에 길들여진 가운데 토론 문화 대신에 텔레비전과 폭력과 섹스 일색인 비디오들에 중독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소비주의에 길들여진 가운데, 매스미디어의 위선과 변덕에 놀아나고, 젊은 세대는 자신의 취향만을 내세우며 록음악으로 남의 고막까지 강타하고, 무책임하게 '빈둥거리는 자들'(pasotas)이 되어 있다. 대낮부터 과음을 하여 택시에 토사물을 쏟아놓는 여자, 거지 짓을 즐기는 지식인 등 갖가지 군상이 공존한다.[3]

---

3) 부정적인 현실 묘사에 안타깝게 한국인도 끼어 있다. 몬테비데오의 구 시가지와

이밖에도 작가는 칼럼 형식으로 국제적인 범위의 비판의식을 드러낸다. 제 43장에서는 아벨란제 회장이 이끄는 국제축구연맹(FIFA)을 비롯하여 문화예술계와 언론계 등에 은밀히 숨은 <합법적인 마피아>가 각 계각층에서 현대사회를 움직인다는 것을, 제 52장의 <광고와 나>에서는 광고가 상품을 팔면서 이데올로기도 끼워 판다는 것을, 제 59장에서는 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탄 포르투갈의 사라마구의 중요성을 예견하면서 그가 갈파한 <속임수로서의 민주주의>를 논하는데, 현대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결정권자는 투표에 의해 뽑히지 않는 대자본주, 금융가, 다국적 기업가들이라는 것이다.

3. 가해자가 치르는 대가

대체로 중남미의 군부는 정치 권력의 일선에서 물러섰지만 전비(前非)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태라서, 민주 정권들이 독재권력과 그에 결탁하였던 세력에 대한 단죄를 제대로 하질 못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주인공의 옛 동지는, 복수는 초월자가 해주어야지 사람이 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르친다고 빈정거린다.[4] 이런 상황에서, 하비에르는 넌지시 원한을 풀자고 말해보지만, 그의 친구는 약간은 장난스럽게, 자기는 매일 원한에 물을 주어 키우고 있으며 이걸 자손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겠노라고 대꾸한다.

그러나 가해자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고문을 지휘하고 직접 실행하기도 한 사울 베하라노 대령을 등장시켜 그 심리를 추적함으로써 가해자들이 이미 스스로 치르고 있을 정신적 불안과 공황 상태를 암시한다. 즉, 자신들의 행위를 국가전복음

디스코텍과 카바레가 밀집한 중심가 일부를 한국인이 '침략'하였고, 매춘부를 차지하려고 길거리에서 자기네들끼리 태권도 실력을 발휘하곤 한다는 개탄이 79, 313쪽에 나온다.

4) 베네데티의 반종교적 성향으로 보아, 이 말은 신에게 의탁한다는 뜻이 아니라, 신이 마땅한 징벌을 하지 않고 있음을 비꼬는 것으로 이해된다

모에 맞선 불가피한 구국의 조치였다고 그 목적을 아무리 합리화해도, 비인간적인 수단에 대해서 비판을 면할 수는 없으며, 겸손과 선량함을 잃은 독선적인 자세는 주위로부터 고립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울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반성 없이 세계와의 화해를 시도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결국은 자살을 하고 만다.[5] 가해자의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양심을 편하게 하고, 피해자의 원한도 누그러뜨리지만, 죄가 워낙 막중하고 또 소속 집단의 감시와 압력 때문에 가해자들은 여간해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6]

밀고자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작품에서는 '뚜깐'(남미에 서식하는 주둥아리가 무척 큰 새)과 세르반도란 두 인물을 보여준다. '뚜깐'은 과거의 행태를 못 버리고 있음으로 해서 화기애애한 자리에 낄 수가 없다. 그러면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선의의 말을 곡해하여 악담을 퍼붓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나타난다. 세르반도는 유식한 작자이나 경찰에 정탐꾼으로 고용되어 거지 행세를 하다가, 민정 복구 후에 아예 전업 거지로 나선 경우이다. 주말에는 스쿠터를 몰고 해변으로 놀러가서 재미도 보는 등 자기 딴에는 인생을 즐긴다고 하지만, 비참에 비열을 보탠 격이다.

좌파 활동가에서 좌익 사상을 질병이라 규정하고 보수우익 정당의 국

---

5) 사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초기 기독교 시대에 예수교도를 핍박하던 사울이 회개하고 사도 바울이 된 것에 빗대려고 한 것 같다. 그러나 작가가 노리는 것은 회개라는 형식이지 종교적 회심이라는 본질은 아니다.

6) 아르헨티나 전 해군 소령 쎌링고가 95년 2월에 양심선언을 통해, 아르헨티나 군부가 수천 명을 산채로 바다에 처넣은 만행을 폭로하여 귀중한 증언을 역사에 남겼지만, 누구로부터도 호감을 얻지는 못 했다. 폭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그 자신 가담자인 탓도 있지만, '국가전복음모'에 맞선 군부통치는 정당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고백 당시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일 것이다(타임지, 95. 3. 27 「Argentina · Waves from the past」, 95. 10. 28 「In Exposing Abuses, Argentina Earns Hate」 참조) 즉, 잘못을 고백하더라도 진정한 회개가 따르지 않을 때 오히려 분노와 혐오를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울은 우루과이에서는 아르헨티나에서처럼 사람을 수장시키진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머리를 똥통에 집어넣거나 고환에 전기충격을 가하거나 끌려온 여자들을 윤간하거나 등등의 죄악에 대해서조차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비에르에게 부탁을 하러 온 입장에서 오히려 고압적으로 공갈을 하는 가증스러움을 보인다.

회의원으로 변신한 바르가스도 정신적 불안 증세를 보이다 자멸하는 경우이다. 작품은 명시적으로 그의 심리를 설명하거나 분석하진 않지만, 독자는 그가 왜 술이 취한 상태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다 횡사를 하게 되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가해자, 밀고자, 전향자가 파멸 혹은 영락하게끔 설정한 것은 어느 정도 작위성을 느끼게 하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는 자는 빠르든 늦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Ⅲ. 결속의 모색

진정한 가치가 사회의 구심점이 되지 못하고, 혹은 자본의 책략 앞에, 혹은 독재의 후유증 때문에 갈가리 찢기어져 있는 조국. 이럴 때 한 개인이 취해야 하는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독재에 저항하다 불가피하게 조국을 탈출하여 망명자로 지내다가 민주 회복으로 인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자 무조건(공들여 일군 생업과 가족마저 포기하고) 탈망명을 선언하고 돌아온 주인공 하비에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독재 시대에는 혁명을 부르짖었던 작가 베네데티가 민주 시대의 조국의 분열상 앞에 그가 모색하고 찾은 대안은 어떤 것들인가?

1. 긍정적 요소의 발견

모든 부정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조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원한다. 새로운 나라가 언제 어디서 시작하게 될는지 막막해 보이고, 이런 저런 독재의 유산이 마음을 무겁게 하여도, 미래는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웃과 더불어 도공(陶工)으로

서 미래를 빚어나가야 하는 것이다.[7]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우하사 끝까지 낙관주의자가 되게 하소서"[8]라고 빌고 싶을 정도이다.

이런 자세를 전제로 하고, 가만 보면 그의 조국은 아직도 괜찮은 나라이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이라는 대국 사이에 낀 병마개 같이 작은 나라이고 역사도 짧지만, 대단치 않은 자신의 수준과 역사에 걸맞지 않은가. 남미에서는 가장 유럽화된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유럽에 동화되길 원하지는 않는다. 창설자(el fundador)는 아니지만 대신에 용해자(el fundidor)가 되려 한다. 어차피 아메리카는 혼혈(메스티조)의 대륙인 것이다. 그리고 유럽은 역사가 비석처럼 무겁게 누르고 있는데 반해, 우루과이는 그 짧은 역사 덕분에 직설법 현재형이 비석이다. 과거가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있지 않은 "이곳에 태어난 우연에 대해 감사"(p.160)할 일이다.

그리고 그가 사는 수도 몬테비데오는 유형·무형으로(즉, 경제 사정이나 외관적으로 보아, 그리고 시민 사이의 유대감 면에서) 많은 훼손을 겪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다.

> "분명한 것은 이 도시는 덜 급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대서양 연안 국가의 다른 수도들보다 스트레스가 덜 하다는 것이다. 백사장이 풍부한 남쪽 해안, 타인의 근접을 용인하는 생활방식은, 독재가 남긴 비열함이란 유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쾌하고 자랑스럽다. 어쩌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절대로 이 도시

---

7) p.146 "el futuro será lo que hagamos con él. Somos los alfareros de ese futuro." 그러나 이렇게 힘찬 의지의 표명의 전후에는 짙은 비관주의가 끼어든다. 즉, 앞에는 "이 뒤엉클어진 세기말에는 비관주의자만이 유일하게 정곡을 찌르는 예언자"라고 하고, 뒤에는 "문제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도자기를 빚는 일이 단기적으로는 컴퓨터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로봇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8) p.174. 주인공 하비에르의 아내가 그에게 빌어주는 말이다. 원문은, "Que Dios te conserve el optimismo." 그러나 하비에르 자신은 p.146에서 빈정대는 태도를 취한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소서."

> 를 다른 어떤 곳과도 바꾸지 않겠고 이건 두말할 나위 없다."
> (p 113)

그의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은 좋고 나쁜 조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고 내린 결론이 아니라, 주관적인 사랑의 의지에 다름 아니다.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스러운 점을 찾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객관적으로는 사랑스러운 것이 많지 않은 세상이지만 자기를 윤리적 인간으로 세워 더불어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에게 있는 것이다.

2. 윤리적 인간

이 작품은 스토리 중심 혹은 인물 중심의 전통적인 소설과는 다르긴 하지만 하비에르를 주인공으로 단정지어도 무리가 없을 만큼 그의 비중은 절대적이다. 74장이 모두 하비에르의 글이거나, 그가 주연 혹은 조연으로 출연하는 에피소드이거나, 그를 대상으로 한 편지인 것이다. 그의 성격과 언행 또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작가의 의도가 하비에르를 통해 명료하게 나타나는 편인데,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윤리성이 두드러진다.

- 효심이 많다 : 어렸을 때부터 홀로 된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벗어난 적이 없다. 망명 중에는 어머니에게 장문의 편지를 자주 쓰되 좋은 소식만 전하고 나쁜 소식은 결코 적지 않았다 돌아와서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따로 살지만 자주 찾아 뵙고 진심으로 경애하며 좋은 말동무가 되어 드린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어머니를 대하는 그의 형과 누나와 대비가 된다.

- 배금주의를 배격하고 인간관계를 중시한다 : 그는 망명 중에 쌓은 재산을 아내에게 충분히 주고 돌아온다. 비디오 가게를 차리지만 친구의 아들을 경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또 폭력물과 음란물을 배제하고 좋은 영화를 애호하던 몬테비데오의 전통을 살리

기 위해서다(다행히 희소가치가 있어 영업이 잘 된다). 나중에 형과 누나가 어머니의 재산을 탐낼 때도 비열한 분배에 끼어 들지 않는다.

- 공적인 책임감이 강하다 : 정치적 불안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우정까지도 스스로 한계를 정하여 대의를 우선하였고, 망명 중에는 늘 고국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외국생활에의 적응이 정체성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다가, 해금이 되자 즉시 조국으로 달려와 칼럼 기고와 좋은 비디오 대여로 나름대로 기여할 바를 찾는다. 왜 그래야 하는가? 책임감 있는 '멍청이'가 있어야 공무원 사회가 유지되고, 우선 조국을 수호해야 수호자로서의 조국이 서기 때문이며, 보다 나은 조국 혹은 인류를 위한 투쟁은 패배로 끝나곤 하지만 그 패배에는 승자가 다다를 수 없는 존엄성이 있고, 그 숭고한 패배가 없었더라면 세계는 더욱 형편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절제와 겸손과 온화를 갖추었다 : 자가용을 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호화로운 장소를 피한다든가 등에서 검소와 절제를 보게 된다. 자기 자신의 활동 경력과 의견을 언제나 낮추고, 우루과이인의 국민적 덕목으로서 겸손을 선양한다.[9] 또, 바른 말을 하되, 공격적이지 않고, 남의 사정을 살피어서 감싸주는 온화함을 지녔다.

이상의 여러 자질을 보면 하비에르는 인·의·예·지·신에 충과 효를 갖춘 완전한 윤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에서 에히스토란 인물이 윤리를 시대착오(anacronismo)라고 표현했지만 하비에르는 윤리로서 시대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10]

---

9) 작가는 1950년 월드컵 축구에서 브라질에게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하는데 수훈갑의 역할을 한 옵둘리오를 그 대표적인 예로 든다. 시합이 끝나고 몰려든 기자들에게 그는 우쭐거리기는커녕, "우연이었습니다"라는 한 마디를 했을 뿐이다 (http //www.deporteweb.com 등 참조)

10) 하비에르가 윤리적 인간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말은 1장의 '은둔자'(anacoreta)이다. 변화된 조국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기 위해 숙고할 수 있는 거리를 둔 그에게 친구 페르민이 붙인 별명이다. 시대착오(anacronismo)와 앞의 세 철자 'ana-'가 같다.

3. 담 허물기와 다리 놓기

윤리는 그러나 본뜻과는 달리 자칫 삶의 질곡이 되기 쉽다. 역사를 통해 볼 때 윤리는 자체적으로 완결된 체계를 추구하면서 편협한 기준을 설정하고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히곤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리에 다른 것이 덧붙여져야만 윤리가 창조적 힘을 갖게 된다. 그것은 개방적 태도, 열린 마음, 포용력, 대화의 정신,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정신이다. 장벽은 허물고 교량은 놓아 서로 통하고 맺어지는 자유공동체주의이다.[11]

이런 면에서 모범을 보이는 대표적인 인물은 하비에르이다. 그는 우선 자기를 따라오지 않은 아내와 딸을 괘씸해하지 않으며, 돌아온 조국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선의의 관계를 복원하려 한다. 그리하여 역시 선의로 그를 대하는 사람들 -어머니와 대부분의 옛 동지들-과 고정된 관계의 틀을 넘어 친구처럼 얘기가 통하는 모자간, 인간적 친밀감과 신뢰가 결합된 동지간이 된다. 투옥으로 인해, 또 못 생겼음으로 인해 외롭고 상처받은 심신을 지닌 로시오와는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된다.[12] 이기심이 지나쳐 비열해지기까지 했던 누나와도 마음을 풀고 화해를 하며, 젊은이

---

11) 앞의 각주에서 윤리인을 암시하는 말이 'anacoreta'라고 했는데,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고 열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역시 페르민이 거기에 'r'을 첨가하여 만든 신조어 'anarcoreta'이다. 이것은 하비에르의 '아나키스트'(anarquista) 성향을 드러내기 위한 별명이다. 참고로, 아나키즘은 전에는 '무정부주의'로 이해되었지만 최근에는 원뜻을 살려 '자유사회사상, 자유공동체주의, 자주공동체운동'으로 파악한다(『오늘의 문예비평』 1998년 겨울. 통권 31호 「아나키즘의 현대적 조명」, 방영준, 세종출판사, pp. 37-58.)

12) 사랑은 여러 가지 동기로 발생을 하지만, 욕망과 미는 사랑을 증진시킨다. 베네데티 작품에서는 얼굴이 못 생겼다고 몸매까지 미운 여자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녀와 하비에르가 서로의 몸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그가 오래 전(1966)에 쓴 단편소설 「못 생긴 연인들의 밤」(La noche de los feos)에서도 욕망이 아름다움을 창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때의 욕망은 육체적 쾌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전인격과 상처를 감싸안는, 즉 인간을 갈구하는 것이다 이러할 때 상대방의 조그만 장점은 나의 최대한도의 사랑을 받을 충분한 자격을 갖는다. 베네데티의 인물들이 갖는 매력은 작가의 이러한 휴머니즘 속에서 탄생한다. 누구도 미 · 재능 · 인격 · 사상 등이 완전하지 않지만, 서로가 화합하고 사랑하지 못할 만큼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은 없다.

와의 대화를 통하여 무책임하고 이기적으로만 보이는 젊은이도 내면을 알고 보면 순수하고 진지한 고뇌를 지닌 인간이라는 것, 그리고 기성세대 역시 젊은 세대의 존경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상호 확인한다.

그를 둘러싼 가족과 옛 동지들도 나름대로 화해와 사랑의 손을 뻗는다. 페르민은 10년을 옥살이하는 동안 서먹해졌던 아내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사랑의 재결합을 이루고,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는 느낌을 갖고 있던 철없는 아들과도 애쓴 끝에 신뢰하는 부자관계를 회복한다. 전직 수녀였던 테레사는 해방신학적 입장을 취하면서 오빠 레안드로와의 거리감을 좁힌다. 하비에르의 딸 까밀라는 이해심이 깊은 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뜬다. 그밖에도 이 작품에는 많은 곳에서 휴머니즘이 가득한 아름다운 관계 혹은 장면들을 보게 된다.

문제는 그런 유대관계가 어떻게 이 부패한 사회, 편견과 불신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확산이 될 수 있겠는가일 것이다. 어떻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바람직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겠는가? 시간은 모든 것을 해결하니까 아마도 독재로 인해 깊이 틀어박힌 불신과 편견도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그러나 그 때가 언제가 될 것인가? 막연히 그 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불신과 편견은 다른 모양으로 자라나지 않는가? 작품이 시사하는 바람직한 해결책은, 서로가 노력하되, 잘못한 자가 뉘우치는 것이다. 묵은 자가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어머니와 동생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온 하비에르의 형과 누나 중에서 후자는 어느 날 동생에게 편지를 쓴다. 미국 생활에서 물욕의 경쟁에 따라가다 보니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왔다는 고백을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의 개인적인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나의 바램이야"(p.256)라고 편지를 맺는다. 하비에르는 참을성과 희망과 선한 믿음을 갖고 남매간에 합당한 형제애를 재건하자면서, "누나가 첫 번째 비계를 놓았고, 여기 두 번째 것이 갑니다"(p.280)라고 화답한다.

또 다른 예로, 그는 어머니로부터 40년 전의 아버지의 죽음의 경위를 듣고서도, "둘 사이에 모자간을 연결시키는 또 하나의 다리가 놓이는"(p.284) 것을 느낀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어떤 우락부락한 사내가 연약한 여자를 패는 것을 말리다 비명횡사를 한 의롭지만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라서 어머니는 평소에 말하길 꺼려온 것이었다. 그러나 하비에르에게 말을 해줌으로써, 또 아들은 물어봄으로써 불행한 사건의 의미를 공유하게 되고 새로운 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보듯, 또 그의 많은 다른 작품들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듯, 베네데티는 가족간의 유대에 대해서 각별한 비중을 두고 있다. 라틴인은 전통적으로 가족을 중시하지만, 어느 사회이든 건강한 사회의 기초는 화목한 가정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가족간에 국한된 유대가 아니다. 남녀간, 노소간, 동지간, 시민간, 즉 모든 사람 사이에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이루어져야 할 유대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가족간에, 남녀간에, 노소간에, 동지간에, 시민간에, 민족간에 즉, 모든 사람 사이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 작가는 독재 치하에서 맺은 악연이라 할지라도 결자해지는 가능하고 또 필요하다는 것을 사울 베하라노 예비역 대령의 경우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만약 그가 찾아온 목적을 양심의 깊은 울림에 따라 밝혔더라면 "공허하고 외로운" 종말은 맞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밖에도 일상의 현장에서 회복해야 할 관계는 무수히 많으며, 그것들은 결자해지의 정신을 넘어서는 능동적인 사랑과 관심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베네데티는 전하고 싶어한다.

4. 대항해야 할 것들.

세상을 살려면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을 가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수동적 자세로 있지 말고 저항을 해야 한다. 『비계』에서 대항할 것으로 직접 거론하는 것은 "소비주의, 광고, 매스 미

디어의 위선과 변덕"(p.219)이다. 이것들은 순한 눈짓으로 우리를 무기력하게 빈둥거리는 자(pasotas)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속아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하비에르의 아내가 편지에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에 의하면, 남편을 따라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이면에는 스페인에서 안락한 소비주의에 젖은 탓도 있다.

작품에서 특히 부정적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은 텔레비전이다. 너무도 많은 시민들이 그것에 중독이 되어, -특히 연속극에 빠져-, 무익하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텔레비전은 "친밀한 영역에 대한 일종의 침략이요, 모욕이며, 남들이 강제하는 생각"(p.137)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태의 독재이다. 그것은 이름하여 '칼라 독재'(dictadura en colores), 혹은 '텔레쓰레기'(la telebasura)라고 불러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인간소외가 보편화된 현대사회에서 많은 사람이 달리 외로움을 달래고 시간을 보낼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무의식의 영역까지 파고드는 에로티즘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하비에르의 꿈에 느닷없이 나타나곤 하는 리타란 요부(妖婦)는 달콤하고 황홀한 쾌락을 거저 제공하지만, 그 대가로 사랑과 욕망의 타락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값싼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

또 하나, 작가가 유도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반(反)종교주의인데, 우루과이가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반카톨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것은 무려 수십 군데에서 나타나는 만큼, 작가가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데 있어 종교를 얼마나 중요한 적으로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연'을 앉히려고 하고, 성자와 교황과 사제와 관습 등을 불합리와 모순으로 규정한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베네데티가 특정 종교 및 종교인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현실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재하는 세계를 부정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작가 자신은 비록 체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믿는 영적 세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닫힌 정신이요, 화해에 역행하는 태도이다.

Ⅳ. 비판적 결론

레오뽈도 쎄아는 말하기를, 중남미인의 사고에서 불변하는 특징은 현실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과 그 현실이 제기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긴급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했다.[13] 이러한 특징은 마리오 베네데티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며, 또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비계』에 잘 들어맞는다. 즉, 이 작품엔 민주화 이후의 우루과이 사정에 대한 객관적인 관찰과 그에 대한 주관적인 반응이 담겨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현실에 대한 정치·윤리적 '진단과 처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자신이 탈망명자(desexiliado)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겪은 민주화된 우루과이의 사정은 비관적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부박(浮薄)함에 덧붙여 독재의 유산과 상처가 진득진득 묻어나고 있다. 부패가 만연한 가운데 시민들은 편견과 불신과 두려움으로 저마다의 장벽을 쌓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현실의 중압감 에 눌려 도망쳐서는 안 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작가는 그 속에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소중하고 아름다운 요소와 가치들을 발견하기도 하고, 인본주의적 윤리의 푯대를 높이 세우며, 열린 가슴으로 너와 나의 장벽을 허무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해야 한다.

어느 작가나 나름대로의 장기와 미덕이 있다. 베네데티의 경우, 그의 글은 일차적으로 독자를 쉽게 한 편으로 끌어들이는 설득력과 흡인력을 갖추고 있다.[14] 비관적인 현실을 드러내고 있구나 싶으면 어느 사이에 끼워 넣은 인간에 대한 믿음, 재치 있는 표현이 오렌지처럼 빛난다. 무거

---

13) Leopoldo Zea, 『Antología del pensamiento social y político de América Latina』 1-56, Washington D.C, Unión Panamericana, 1964 (「Anthropos」 N.°132, mayo 1992, p.84에서 재인용 : 「Urgencias y rumores en la ensayística de Mario Benedetti · una lectura sobre *El país de la cola de paja*, José Castro Urioste)

14) Ibid., p.83.

운 주제를 경묘하게 다루는 그의 솜씨는 노령에 이른 지금도 여전하다. 시적 표현과 상징성이 풍부하여 문학 자체로서도 그의 글은 성립한다.

다른 한편, 일생을 걸고 변하지 않는 그의 사회 개량에의 의지는 경탄할 만하다. 90년대를 전후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은 믿지 못할 인간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누군가 말했지만, 베네데티는 그래도 믿을 것은 인간뿐이 없다는 신념에서 물러서지 않는다. 인간의 욕망이 건전한 양식과 윤리와 결합할 때 인생은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은 개인 차원을 떠나 반드시 공동체의 선으로서 추구되어야 한다고 그는 믿는다. 그의 문학은 그런 신념을 전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정도이다.

작가가 현실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비계를 세우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또한 인간의 유대를 강조하는 베네데티에게서 배울 바가 적지 않지만, 유감스럽게도 그의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는 적어도 두 가지의 결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그의 사상은 시효가 지난 패러다임이다. 진화론적 진보관과 공산주의 이론은 각각 인간의 이성과 품성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던 것이다. 1989년의 베를린 장벽 붕괴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와 교육에 의한 인간의 개량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실험이란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시켜 주었다. 베네데티가 작품 『비계』에서 진화론적 진보관과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꿈꾸는 것이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 "너와 내가 이렇게 이상적인 인간이 된다면" 식의 가정법은 아름다운 소망일 수는 있으나 실현 가능성을 없는 것이다.

둘째, 그의 인본주의적 유토피아는 종교에 대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독자를 오도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작가가 개인적으로 영적 체험이 없어서 종교를 부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공인으로서의 작가는 보다 겸손하고 신중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종교가 인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주장은 종교인들을 피상적으로 관찰할 때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반대로 공산주의권에서 종교

를 철저히 박해한 결과 인간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가를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작가 베네데티에게 종교의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관찰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Benedetti, Mario, 『Andamios』, Alfaguara, Madrid-México, 1997.
2. Benedetti, Mario, 『Cuentos completos』, Alianza Editorial, 1986.
3. 『Anthropos』, N°. 132, mayo 1992, Editorial Anthropos, Barcelona, 1992.
4. 『오늘의 문예비평』, 통권 31호, 1998년 겨울, 세종출판사, 부산, 1998
5. El País지, 1997. 5. 27일자.
6. Times지, 1995. 3. 27일자, 1995. 10. 28일자.
7. 기타 인터넷 자료 다수.

Abstract

Actualidades de Uruguay vistas a través de 『Andamios』 de Mario Benedetti

- la Realidad y el Ideal de un desexiliado

En la década de los 70, millones de latinoamericanos se vieron obligados a exiliarse en otros países debido al surgimiento de las dictaduras militares. Y en la década de los 80, la mayoría de ellos podían regresar a sus países de origen, ahora democratizados. Sin embargo, no era fácil readaptarse a su patria, porque la dictadura dejó un legado de mezquindad y porque por múltiples razones se abrieron brechas entre los ciudadanos. El reencuentro entre los exiliados que volvieron y aquellos que se quedaron ha estado teñido de resquemores y de recelos. La convivencia entre los agresores y las víctimas no ha mitigado prejuicios, desconfianza y miedo. La corrupción ha invadido la vida pública en gran escala, el consumismo se ha apoderado de la gente.

Mario benedetti, uno de los escritores más leídos en América Latina y España, y uno de tantos exiliados que retornaron, describe tal dificultad con la palabra "desexilio" en su última novela 『Andamios』 (Alfaguara, 1997). Ante una realidad no poco sombría de Uruguay, Javier, el personaje que canaliza toda la acción en la novela, no se desespera sino que busca andamios para construir un nuevo país. La democracia es un régimen en construcción continua, y todo régimen en construcción continua precisa de andamios. En la novela cada

capítulo sirve de un andamio para formar 75 en total. Los andamios están consitituidos por agradecer al azar haber nacido allí, reconciliarse y edificar solidaridad con sus antiguos compañeros y familiares, estar dispuesto a olvidar rencores contra los enemigos, disfrutar el deleite corporal a base de ser ético y moral, entender mejor la generación joven, establecer un videoclub para difundir buen cine, resistir a lo que intenta adormecer el juicio, etc.

Se confirma otra vez que la novela de Benedetti es como un proyecto ilusionado de compromiso social, y como sueño utópico de una nueva realidad erigida sobre bases más humanas. Un paradigma atractivo, pero caducado. Experimentos desastrosos del Pregreso y el Comunismo. Sería divino, si nuestro autor encubriera más lo humano.